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정진승

정확한 기상예보의 필요성

1960년대 영화에서 우리는 일기예보와 관련된 재미있는 화면을 보게 된다. 기상청에 근무하는 사위가 잘못된 일기예보를 따르다가 비에 젖은 옷을 입고 귀가하면서 처갓집 식구들로부터 무안을 당하는 희극적인 내용이다. 반면 작년에 상영된 영화 '해운대'는 지각변동으로 시속 800km의 엄청난 쓰나미가 발생하여 우리나라 최대의 여름휴양지인 부산 해운대에 밀어닥치는 재해를 다룬 공포 영화이다.

두 편의 영화를 비교하면서 지난 40여 년 사이에 기상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파급효과가 크게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의 기상예보는 오늘 출근할 때 우산을 챙기고 가야 하는지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었고 예보가 틀려도 단지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면 되는 일이었다. 반면 2000년대의 기후 변화는 '해운대'에서 보듯이 대규모 재해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상영화가 아닌 실제의 상황을 살펴보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현상으로 2003년의 유럽 폭염은 3만5000여 명의 사망과 16조여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혔으며 2005년 미국 남부지역을 강타한 태풍 '카타리나'는 1300여 명의 인명피해와 약 148조원의 재산피해를 기록하였다. 지난 2008~2009년 2년 동안 동남아지역에서는 기상의 돌발적인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약 30만명의 인명이 사망하였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 규모는 4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화 '해운대'에 나타나는 재난은 이미 전 세계에서 수시로 발생하면서 수많은 인명 손실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최근의 국내 상황을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금년 4월까지 예외적인 저온으로 양식장에서는 물고기 성장이 둔화되어 큰 피해를 주었고 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초봄의 한파로 과수원에서는 금년 가을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농민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평균 온도가 2050에는 1990년과 비교해 약 4.0도C 상승하여 온대성 기후에서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 부족 현상과 수질오염, 농산물의 병충해 증가와 토양의 황폐화는 물론, 건강의 측면에서도 스트레스 증가와 말라리아 같은 열대 질병이 토착 병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상의 변화는 재난과 관련된 사항만이 아니다. 국내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50%가 날씨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농업, 수산업을 포함한 1차 산업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해운·항공·건설·전기 및 전자·음료·섬유·관광산업 등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보에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기상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상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원천적으로 기후변화의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진, 홍수를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불가능하다.

또한 정부가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재난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은 기후변화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이미 발생한 이후에 피해를 복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기후변화를 사전에 예측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기후변화의 예측이 필수적이다.

현재 기후 예측은 단기예보, 3개월 예보, 6개월 사전예보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나 정확성은 단기예보를 제외하면 30% 수준에 미달하고 지역별로도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정부가 기상예보의 정확성을 약 5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기존에 산재해 있는 연구추진 체계를 재정비하고 기술개발 투자를 합리적인 수준까지 조정한다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물론 전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물론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PEC기후센터 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주민·공공 목적 'LH사업' 중단 재고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정난을 이유로 전국 120여 곳의 도시개발 및 주택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사업장 8곳도 중단 또는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장 피해를 입게 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먼저 광주시 광산구와 함평군 월야면에 조성 중인 '빛그린산업단지'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LH가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해 착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효천1지구와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역시 손을 놓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LH가 협력해 주거·상업·행정기능의 31층 짜리 쌍둥이 빌딩을 건립하기 위한 목포 남교지구 재건축 사업도 현재로선 난망이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던 광주 지원3구역과 유촌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미 사업이 중지됐다.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이던 광주 동명2구역과 양림2구역도 재검토에 들어갔다.

해당 주민들의 입장에선 날벼락이나 마찬가지다. 공기업을 믿고 몇 년씩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을 감수해 왔기 때문이다. 광주시 등 지자체 역시 공공사업 표류로 도시계획 및 재정운용상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사실 LH가 빚더미에 오른 것은 세종시 등 국책사업을 떠안은 탓이 크다. 여기에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고 방만하게 사업을 벌이고 무리한 경영을 해온 것도 일조를 했다. 이러한 책임을 부동산 시장과 주민들에 떠넘기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이제라도 LH는 주민과 부동산 시장의 충격을 가급적 줄이고 공공사업의 차질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공공사업은 공익성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중단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공개 잘한 일이다

지자체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이 내년부터 공개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가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와 일시 등 기준을 만들어 올 하반기 중에 지자체가 이 기준에 따라 지출 내역을 알리게 하고 내년부터 공개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업무추진비는 그동안 사용처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두고 정보공개 청구소송, 고발 등 송사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전국 190개 상당의 지자체단체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도 지역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돼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업무추진비를 본래 취지를 벗어나 변칙·위법하게 집행한 사례는 다양하다. 전공노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단체장들은 일반부서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준 것처럼 서류를 꾸기거나 직접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도 사용처 등 근거 서류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불우이웃돕기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주류를 구입한 뒤 이를 지역 유지들에게 돌린 단체장도 있었다. 국민의 혈세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효율적인 직무수행과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공적이고 주민을 위한 것에만 쓰여야지 지금처럼 국민의 세금을 단체장 호주머니 쌈짓돈 쓰듯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부가 지자체단체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키로 한 것은 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공개 기준을 만들어 단 한푼의 혈세도 새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업무추진비 공개를 지자체단체장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모든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

의료 칼럼

강채미

각양각색, 체질별 여름나기

요즘 더위로 인한 증세를 호소해오는 수험생이 늘어나고 있다.

"식욕이 없고 신경질만 나요. 기력도 없고 자꾸 눕고 싶어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하나같이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들어오는 내용이 없고 기운이 빠진다고 많은 걱정을 한다. 가뜩이나 시험으로 불안한 마음에 육체적으로도 허약해지자 더 큰 불안을 느끼는 듯하다.

여름은 급격한 기온상승과 잦은 비로 공기 중 습열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난다.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아득해지며 답답하고, 식은땀이 흐르고, 또 다리가 약해지며, 가슴과 손 발바닥에서 번열이 나고, 입이 쓰며 혀가 마르고, 구역질이 나고, 맥은 빠르면서 힘이 없어 지곤 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여름이 되면 식욕이 줄고 기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복날이면 삼계탕이나 보신탕을 먹어 건강을 챙기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 그 효능의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체질에 따른 처방이 매우 중요하다.

사람은 크게 4가지 체질로 분류 되는데 그에 따른 여름나기 방법을 알아본다.

소음인은 몸이 찬 편이어서 냉방이 잘 되는 곳에 있으면 오히려 추워할 정도지만 과로나 스트레스로 기가 부족하게 되면 땀구멍이 열려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탈진현상을 초래한다. 게다가 소화기능이 약해 찬 음식을 삼가야 하므로 땀을 막고 위장의 기능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보양을 해야 한다. 보신탕이나 오렌지, 귤, 인삼다린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다.

소양인은 성격이 직선적이고 급해 열이 많기 때문에 여름이면 땀이 많이 나고 얼굴이 붉어지며 찬 것을 많이 찾게 된다. 소양인은 소음인과는 반대로 열기를 빼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리고기나 수박, 참외, 포도, 산수유 쥬스 등을 마셔 주는 것이 좋다.

태음인은 성격은 느긋하지만 혈액순환이 잘 안돼 땀을 많이 흘릴수록 좋다. 땀을 많이 흘리면 체액순환도 잘 되고 내열이 발산돼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에어컨이나 선풍기 앞에 다가서는 것 보다는 적당한 운동과 사우나를 해주는 것이 이롭다. 기혈을 돕고 갈증을 달래주는 육개장이나 오미자 달인 물을 먹으면 좋다.

태양인은 상체에 비해 하체가 약하고 몸 안의 열이 위로 올라와 입이 자주 마르고 손발이 뜨거워진다. 또한 수분이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 소변 양이 줄고 체력이 크게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를 내려주면서 음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담백한 음식을 먹어주는 것이 좋다. 붕어매운탕이나 솔잎 차 등을 먹으면 좋다.

이렇듯 여름철에는 체질에 따라 몸의 기운과 진액을 잘 유지·관리해야하며, 동시에 비위가 상하지 않도록 많은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수험생들은 부족한 단백질과 비타민을 보충해야 함으로 마늘, 파, 토마토 쥬스, 돼지고기, 장어 등을 먹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날이 덥다고 찬물로 얼굴과 손을 씻지 말아야 한다. 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더위로 인한 집중력 감소와 무기력감에 짜증이 나겠지만 맛난 보양식과 간식으로 한 걸음 쉬어 가보자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으로 몸을 다져주면 더 나은 한걸음을 내 딛을 수 있을 것이다.

〈박달나무 한의원 원장〉

기고

정석원

자연과 하나 되는 휴가문화

여름 불볕더위가 시작되면서 바야흐로 휴가철이다.

휴가철이 되면 무더위를 피해 수많은 인파들이 도시를 떠나 자연을 찾아 나선다. 그리고 이들을 맞이한 자연은 매번 사람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휴가문화가 바뀌고 자연보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확대되면서 점차 그 피해가 줄어들고 있지만 일정한 기간에 집중된 탐방객들로 인하여 자연이 포용할 수 있는 한계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국립공원의 경우 많은 탐방객들이 휴가를 보내기 위하여 찾고 있어, 휴가철 탐방압력이 높고 이로인한 자연 훼손과 환경오염의 우려가 높은 곳이다. 따라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국립공원내 불법무질서 행위와 자연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사고·불법 질서행위·쓰레기가 없는 '3무(無)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열사람이 도둑 한명을 못 잡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정화활동을 벌인다고 해도 탐방객의 의식변화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은 훼손돼 많은 동식물들이 터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지금까지 많은 계도와 안내를 통해 국립공원내 금지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올바른 탐방문화가 정착되고 있지만, 휴가철이 되면 여전히 계곡 내에서 취사 · 야영 등의 불법행위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행하고 있다.

또한 물가에 앉아 삼겹살을 구어 먹거나, 계곡을 찾아 삼계탕 등 보양식을 끓여 먹어야 여름을 제대로 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행위는 자기 세대만 생각하고 우리 후손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후손에게서 빌려 쓰고 있는 자연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자연을 소비하는 바캉스문화가 아닌 자연과 하나 되는 바캉스문화를 정착 시켜야 할 것이다.

'자연과 하나 되는 바캉스문화'를 만드는 것은 작은 행동으로도 실천가능하다. 그것은 자연을 만끽하면서 자연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우리가 머물렀던 자연을 떠날 때 우리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휴가철을 조금 피해 자연을 찾는 것 등 거창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바캉스'(vacance)란 말은 프랑스어로 '휴가'를 뜻한다. 그 어원을 살펴보면 라틴어의 '바카티오(vacation)'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뜻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바캉스는 일상의 얽매여진 삶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가 우리의 바캉스는 자유로워지는 여행이 아니라 인파들 속에서 자연을 훼손하고 소비하는 여행, 구속되고 속박되는 여행으로 변질됐다.

이제 인공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인간 본래의 고향인 자연에서 그 의미를 느낄 수 있고 진정한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바캉스가 되도록 우리의 휴가문화를 바꾸어야 할 때이다.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장〉

無等鼓

테디베어

지난해 드라마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솔약국집 아들들'에는 가족 '대우'를 받는 소품 하나가 등장한다. 극중 탤런트 오은지의 곰인형이다. 방송국 보도국장의 외동딸로 천방지축 구김살 없어 보이는 그녀지만, 남모를 아픔이 있다.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뒤 곰 인형 하나 달랑 들고 큰 아빠 댁으로 들어온 고아였던 거다. 그녀는 털이 다 빠져 보기 흉해진 곰인형을 버리지 못한다. 솔약국집 셋째 송선풍은 그런 그녀에게 자신을 닮은 큼직한 곰인형을 새로 선물해 마음을 얻는다.

이쯤이면 그냥 곰인형이 아니다. 가족이며 인생의 동반자다.

곰인형으로 통칭하는 '테디베어(Teddy Bear)'는 출발부터 그랬다. 테디베어가 첫 선을 보인 것은 1902년. 그해 11월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곰 사냥을 나갔지만 번번이 허탕을 쳤다. 보다 못한 수행원이 나무에 새끼곰을 매달아 놓았다. 하지만 대통령은 살려준다. 때마침 뉴욕에서 장난감 가게를 하던 모리스 미첨 부부는 독일에서 수입한 곰인형에 루스벨트의 애칭인 '테디'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허락받는다.

테디베어는 그 푸짐한 몸집과 순박한 표정 덕분에 대박 상품이 된다. 테디베어는 특히 1914년부터 30여년간 1· 2차 세계대전, 대공황을 거치면서 세계에 대한 믿음과 가치관이 깨져버린 유럽인들에게 특별한 존재로 떠오른다. 행복한 시절에 대한 소중한 기억이었고, 잃어버린 꿈을 상기시켜 주는 매개체이자, 헤어진 가족을 대신하는 친구였다.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희귀한 테디베어 수집이라는 예술 영역을 탄생시켰을 정도다.

9월에 열릴 광주비엔날레에 이데사 헨델스(Ydessa Hendelles)의 '테디베어 콜렉션'이 선보인다는 소식이다. 테디베어 초기부터 1940년까지 작품으로 보험가액만 15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작품전을 계기로 광주를 상징하는 테디베어도 하나쯤 나왔으면 싶다.

/김주정 여론매체부장 jjnews@

불법현수막 운전자 시야 방해 사고 위험… 정비 시급

얼마전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 빨리 출근해 달라는 연락에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차를 끌고 나갔다. 급하게 운전하던중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사람 두명이 걸어가는게 아닌가. 밤중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갑작스레 나타난 사람을 보고 너무나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하지만 이내 교차로에 설치돼 있던 불법현수막을 보는 순간 너무나 화가 치밀었다. 대리운전을 선전하는 현수막이 우회전 하는 나의 시선을 방해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그 두사람도 그 현수막에 가려 내 차를 제대로 못본듯 했다.

차를 운전하고 도로를 달리다보면 간혹 교차로 주변에 걸려있는 현수막이나 커다란 입간판 등이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를 자주 겪는다. 그것도 단순히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는것 뿐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 퇴폐적 내용의 풍속영업 관련 불법 옥외광고물 도 많다.

이처럼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큰 위험을 주는 현수막은 일제 정비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바란다.

▲강석훈·광주시 남구 주월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